

#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판사, 전업 작가 되다

## 나로 살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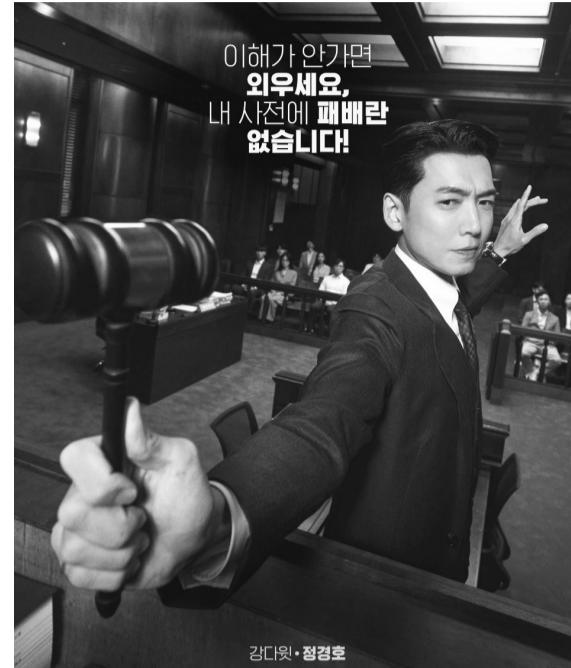
문유석 지음

배우 정경호 주연의 tvN 드라마 ‘프로보노’는 속물 판사가 사고를 친 후 본의 아니게 공익 변호사가 돼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이야기다. 가까운 미래, 전국 민이 참여하는 법정쇼가 등장하는 ‘악마 판사’, 고아라 주연의 ‘미스 함무비’ 역시 화제를 모은 법정물이다. 세 편의 법정 드라마를 쓴 주인공은 전직 판사 출신 문 유석 작가. 전년까지 판사로 일하는 게 인생 목표였던 그는 지난 2020년 법복을 벗고 전업 작가가 됐다.

이미 ‘개인주의자 선언’, ‘최소한의 선의’, ‘쾌락 독서’ 등의 저서를 통해 만만치 않은 글 실력을 보여온 문 유석 작가가 전업작가라는 ‘두 번째 삶’을 담은 에세이 ‘나로 살 결심’을 펴냈다. “남들의 기대, 시선, 평가가 어떻든 내가 느끼는 솔직한 감정, 욕망, 행복을 향아 살 자고 마음 먹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판사라는 갑 웃을 벗어버리고 시작된 ‘두 번째 선택’은 시행착오와 고민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을 통해 그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

삶의 대전환을 앞두고 스스로를 밑바닥까지 들어다 보려고 애썼던 저자는 23년간 판사로 살았던 ‘첫 번째 삶’부터 써내려간다. 그는 자신을 법원 안에서’ 바꿔보려했던 ‘나이브한 이상주의’였다고 말한다. “자기 일에 성실한 엘리트집단의 자정 능력을 신뢰했고, 시스템을 신뢰했고,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을 신뢰했지만” “법부는 법의 논리 대신 힘의 논리, 정치의 논리가 작동하는 징”이었다. 사법부의 원칙은 힘 앞에 무력했으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는 하나’라는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글 쓰는 판사’로 전년을 맞고 싶었던 저자는 세월호



23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문유석 작가가 대본을 쓴 tvN 드라마 ‘프로보노’



tvN 제공

관련 기고가 원인이 돼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고, 이른바 ‘사법농단’을 접하며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저자는 새로운 삶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생전 없던 불면증과 심장 두근거림 현상,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 반강제로 체득되는 겸손함, 내 코가 섹시라 생기는 세상에 대한 무관심, 유튜브 중독, 독서불감증…” 저자가 전업작가 생활 5년 동안 얻은 것들이다. 스스로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듯한 슬럼프를 여러번 겪은 저자는 ‘쓰고 싶은 글’을 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좋은 재판이란 무엇인가’ 고민했던 저자는 이제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늘 생각한다. 그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끊임없이 부딪치면서 힘겹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장소가 바로 법정이기에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법정드라마를 통해 ‘정의’를 찾아보려한다. “밤마다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끝도 없이 밀려오는 개인파산 사건 기록하나 하나를 정성스럽게 읽고 고민하던 동료, 작은 별금 사건 피고인의 하소연을 미련히리 만큼 귀기울여 듣고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하려던 동료”를 기억하는 그는 “자기 일에 애정을 가진 성실한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타고난 영웅보다는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속물인 현실적인 인간을 좋아”하기에 그런 인물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여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하려”한다.

그는 “거창한 아님도 집단도 아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줄 아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느슨한 연대가 세상을 실질적으로 낫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문화동네·1만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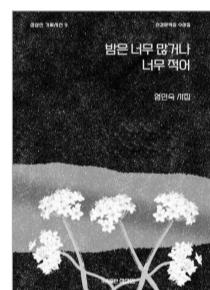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사랑과 비극을 은유한 ‘침대’의 상상력

### 밤은 너무 많거나

### 너무 적어

### 염민숙 지음



들에게 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고봉준, 김종태 심사위원들은 수상작품에 대해 “존재의 반어와 역설을 깨뚫는 비극적 상상력을 통해 다채로운 이미지로써 밀도 높은 상징체계를 구현한 작품들”이라고 평한 바 있다.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뱀처럼 한 사람이 침대를 건너가고 있다/ 길을 기다 뱀에 물리는 일과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 일 중 어느 쪽 확률이 높을까/ 한 사람의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침대를 건너기자// 향이 다른 침대가 되었다/ 낮선 거리의 향이 이불에 스며 있다/ 이불에 체취를 남기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침대를 넘어왔을까/ 낮선 향을 악물고 놓지 않는 이불을 들고 뒤틀어보면/(후략)”

수상작 ‘뱀과 침대’는 상상력과 이미지의 현란한 극치를 보여준다. 익숙한 사물과 공간을 낯설면서도 비극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독특하면서도 삼미적이다. ‘침대’를 도티브로 사람과 뱀을 병치시켜 사랑과 일상을 은유한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저어새가 갯바닥을 젖듯 문장의 바다를 저었다”며 “때로 칠성장어 같은 문장 하나를 견겠다”고 했다.

시 쓰기를 향한 지독한 열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마치 시라는 ‘고기’를 잡기 위해 거대한 저수지 둑의 물을 바자기로 펴내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듯하다. 허투루 작품을 쓰지 않는, 고루의 흔적이 읽혀져 작품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다가온다.

해설을 쓴 고광식 평론가는 염민숙 시인의 작품에 대해 “감각은 자아와 타자 사이를 지나 부조리의 세계를 확인하기까지 증식을 거듭한다”며 “감각은 타자에다가 갈 때마다 여러 사물을 관통한다. 시인은 그렇게 증식된 감각을 현상 안쪽을 살피는 데 성공한다”고 평했다.

한편 염 시인은 2015년 면니투데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 ‘시라지’, ‘오늘을 여는 건 여기까지’를 펴냈다.

〈상상인·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상상인 기획시선 9번째로 출간된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다채로운 이미지와 감각을 펼쳐낸다.

작품집은 1부 ‘사는 발효된 그 밤을 자꾸 물어와’, 2부 ‘건반과 건반 사이에 오래 누워’, 3부 ‘길이 하나였다면 4월이 더 쉬웠을까’, 4부 ‘그녀를 뒤틀어보는 동안 하루가 지났다’로 구성돼 있다.

모두 50여 편의 시는 수상집에 값하는 작품들로 독자

에게 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고봉준, 김종태 심사위원들은 수상작품에 대해 “존재의 반어와 역설을 깨뚫는 비극적 상상력을 통해 다채로운 이미지로써 밀도 높은 상징체계를 구현한 작품들”이라고 평한 바 있다.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뱀처럼 한 사람이 침대를 건너가고 있다/ 길을 기다 뱀에 물리는 일과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 일 중 어느 쪽 확률이 높을까/ 한 사람의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침대를 건너기자// 향이 다른 침대가 되었다/ 낮선 거리의 향이 이불에 스며 있다/ 이불에 체취를 남기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침대를 넘어왔을까/ 낮선 향을 악물고 놓지 않는 이불을 들고 뒤틀어보면/(후략)”

수상작 ‘뱀과 침대’는 상상력과 이미지의 현란한 극치를 보여준다. 익숙한 사물과 공간을 낯설면서도 비극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독특하면서도 삼미적이다. ‘침대’를 도티브로 사람과 뱀을 병치시켜 사랑과 일상을 은유한다.

작품집은 1부 ‘사는 발효된 그 밤을 자꾸 물어와’, 2부 ‘건반과 건반 사이에 오래 누워’, 3부 ‘길이 하나였다면 4월이 더 쉬웠을까’, 4부 ‘그녀를 뒤틀어보는 동안 하루가 지났다’로 구성돼 있다.

모두 50여 편의 시는 수상집에 값하는 작품들로 독자

에게 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고봉준, 김종태 심사위원들은 수상작품에 대해 “존재의 반어와 역설을 깨뚫는 비극적 상상력을 통해 다채로운 이미지로써 밀도 높은 상징체계를 구현한 작품들”이라고 평한 바 있다.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뱀처럼 한 사람이 침대를 건너가고 있다/ 길을 기다 뱀에 물리는 일과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 일 중 어느 쪽 확률이 높을까/ 한 사람의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침대를 건너기자// 향이 다른 침대가 되었다/ 낮선 거리의 향이 이불에 스며 있다/ 이불에 체취를 남기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침대를 넘어왔을까/ 낮선 향을 악물고 놓지 않는 이불을 들고 뒤틀어보면/(후략)”

수상작 ‘뱀과 침대’는 상상력과 이미지의 현란한 극치를 보여준다. 익숙한 사물과 공간을 낯설면서도 비극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독특하면서도 삼미적이다. ‘침대’를 도티브로 사람과 뱀을 병치시켜 사랑과 일상을 은유한다.

작품집은 1부 ‘사는 발효된 그 밤을 자꾸 물어와’, 2부 ‘건반과 건반 사이에 오래 누워’, 3부 ‘길이 하나였다면 4월이 더 쉬웠을까’, 4부 ‘그녀를 뒤틀어보는 동안 하루가 지났다’로 구성돼 있다.

모두 50여 편의 시는 수상집에 값하는 작품들로 독자

에게 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고봉준, 김종태 심사위원들은 수상작품에 대해 “존재의 반어와 역설을 깨뚫는 비극적 상상력을 통해 다채로운 이미지로써 밀도 높은 상징체계를 구현한 작품들”이라고 평한 바 있다.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뱀처럼 한 사람이 침대를 건너가고 있다/ 길을 기다 뱀에 물리는 일과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 일 중 어느 쪽 확률이 높을까/ 한 사람의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침대를 건너기자// 향이 다른 침대가 되었다/ 낮선 거리의 향이 이불에 스며 있다/ 이불에 체취를 남기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침대를 넘어왔을까/ 낮선 향을 악물고 놓지 않는 이불을 들고 뒤틀어보면/(후략)”

수상작 ‘뱀과 침대’는 상상력과 이미지의 현란한 극치를 보여준다. 익숙한 사물과 공간을 낯설면서도 비극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독특하면서도 삼미적이다. ‘침대’를 도티브로 사람과 뱀을 병치시켜 사랑과 일상을 은유한다.

작품집은 1부 ‘사는 발효된 그 밤을 자꾸 물어와’, 2부 ‘건반과 건반 사이에 오래 누워’, 3부 ‘길이 하나였다면 4월이 더 쉬웠을까’, 4부 ‘그녀를 뒤틀어보는 동안 하루가 지났다’로 구성돼 있다.

모두 50여 편의 시는 수상집에 값하는 작품들로 독자

에게 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고봉준, 김종태 심사위원들은 수상작품에 대해 “존재의 반어와 역설을 깨뚫는 비극적 상상력을 통해 다채로운 이미지로써 밀도 높은 상징체계를 구현한 작품들”이라고 평한 바 있다.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뱀처럼 한 사람이 침대를 건너가고 있다/ 길을 기다 뱀에 물리는 일과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 일 중 어느 쪽 확률이 높을까/ 한 사람의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침대를 건너기자// 향이 다른 침대가 되었다/ 낮선 거리의 향이 이불에 스며 있다/ 이불에 체취를 남기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침대를 넘어왔을까/ 낮선 향을 악물고 놓지 않는 이불을 들고 뒤틀어보면/(후략)”

수상작 ‘뱀과 침대’는 상상력과 이미지의 현란한 극치를 보여준다. 익숙한 사물과 공간을 낯설면서도 비극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독특하면서도 삼미적이다. ‘침대’를 도티브로 사람과 뱀을 병치시켜 사랑과 일상을 은유한다.

작품집은 1부 ‘사는 발효된 그 밤을 자꾸 물어와’, 2부 ‘건반과 건반 사이에 오래 누워’, 3부 ‘길이 하나였다면 4월이 더 쉬웠을까’, 4부 ‘그녀를 뒤틀어보는 동안 하루가 지났다’로 구성돼 있다.

모두 50여 편의 시는 수상집에 값하는 작품들로 독자

에게 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고봉준, 김종태 심사위원들은 수상작품에 대해 “존재의 반어와 역설을 깨뚫는 비극적 상상력을 통해 다채로운 이미지로써 밀도 높은 상징체계를 구현한 작품들”이라고 평한 바 있다.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뱀처럼 한 사람이 침대를 건너가고 있다/ 길을 기다 뱀에 물리는 일과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 일 중 어느 쪽 확률이 높을까/ 한 사람의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침대를 건너기자// 향이 다른 침대가 되었다/ 낮선 거리의 향이 이불에 스며 있다/ 이불에 체취를 남기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침대를 넘어왔을까/ 낮선 향을 악물고 놓지 않는 이불을 들고 뒤틀어보면/(후략)”

수상작 ‘뱀과 침대’는 상상력과 이미지의 현란한 극치를 보여준다. 익숙한 사물과 공간을 낯설면서도 비극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독특하면서도 삼미적이다. ‘침대’를 도티브로 사람과 뱀을 병치시켜 사랑과 일상을 은유한다.

작품집은 1부 ‘사는 발효된 그 밤을 자꾸 물어와’, 2부 ‘건반과 건반 사이에 오래 누워’, 3부 ‘길이 하나였다면 4월이 더 쉬웠을까’, 4부 ‘그녀를 뒤틀어보는 동안 하루가 지났다’로 구성돼 있다.

모두 50여 편의 시는 수상집에 값하는 작품들로 독자

에게 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고봉준, 김종태 심사위원들은 수상작품에 대해 “존재의 반어와 역설을 깨뚫는 비극적 상상력을 통해 다채로운 이미지로써 밀도 높은 상징체계를 구현한 작품들”이라고 평한 바 있다.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뱀처럼 한 사람이 침대를 건너가고 있다/ 길을 기다 뱀에 물리는 일과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 일 중 어느 쪽 확률이 높을까/ 한 사람의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침대를 건너기자// 향이 다른 침대가 되었다/ 낮선 거리의 향이 이불에 스며 있다/ 이불에 체취를 남기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침대를 넘어왔을까/ 낮선 향을 악물고 놓지 않는 이불을 들고 뒤틀어보면/(후략)”

수상작 ‘뱀과 침대’는 상상력과 이미지의 현란한 극치를 보여준다. 익숙한 사물과 공간을 낯설면서도 비극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독특하면서도 삼미적이다. ‘침대’를 도티브로 사람과 뱀을 병치시켜 사랑과 일상을 은유한다.

작품집은 1부 ‘사는 발효된 그 밤을 자꾸 물어와’, 2부 ‘건반과 건반 사이에 오래 누워’, 3부 ‘길이 하나였다면 4월이 더 쉬웠을까’, 4부 ‘그녀를 뒤틀어보는 동안 하루가 지났다’로 구성돼 있다.

모두 50여 편의 시는 수상집에 값하는 작품들로 독자

에게 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고봉준, 김종태 심사위원들은 수상작품에 대해 “존재의 반어와 역설을 깨뚫는 비극적 상상력을 통해 다채로운 이미지로써 밀도 높은 상징체계를 구현한 작품들”이라고 평한 바 있다.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뱀처럼 한 사람이 침대를 건너가고 있다/ 길을 기다 뱀에 물리는 일과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 일 중 어느 쪽 확률이 높을까/ 한 사람의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침대를 건너기자// 향이 다른 침대가 되었다/ 낮선 거리의 향이 이불에 스며 있다/ 이불에